

리뷰/ 광주일보 창사 66주년 기념 '필하모닉스' 광주 공연

클래식 틀 깨고 '클래스' 보여준 120분

발 쿵쿵·성악·현 뜯기·휘파람
파격으로 시작해 파격으로 끝
팝·재즈·왈츠·캐롤 넘나들며
퀸·스팅 명곡 완벽한 재탄생
6인의 참신한 무대 기립박수

최정상급 클래식 연주자들의 '유쾌한 일탈'로 연말이 뜨겁게 달궀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가 지난 1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아시아 투어 중 한국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광주일보가 창사 66주년을 맞아 기념공연으로 WCN과 공동 주최한 이번 무대는 1700여 석의 객석을 가득 메우며 큰 관심을 모았다. 2007년 혜성처럼 등장한 '필하모닉스'는 베를린 필 악장을 맡고 있는 노아 벤디스-발글레이를 비롯해 세바스티안 거틀러(바이올린), 티로 페히너(비올라-빈 필), 스테판 콘츠(첼로-베를린 필), 오돈 라츠(더블베이스-빈 필 수석단원), 다니엘 오펜잠머(클라리넷-빈 필 수석), 크리스토프 트락슬러(피아노)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클래식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정통 클래식과 재즈·팝송·탱고·캐롤 등 장르를 뛰어넘는 무대를 선사하며 전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세계가 사랑하는 음악인들이 선보이는 무대는 역시 달랐다. 연주자 전원이 참여한 세련된 작곡·편곡과 완벽한 연주로 관객들은 '귀 호강'을 누렸다. 연주자들은 발구르기·성악·현 뜯기·휘파람 등을 동원하며 시종일관 파격을 구사했지만 탄탄한 연주실력을 바탕으로 한 참신한 시도였기에 관객들은 애정을 가지고 관람했다.

무대는 '왈츠의 왕'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으로 문을 열었다.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무곡을 완벽한 호흡으로 풀어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곡은 첼리스트 스테판 콘츠가 작곡한 '새로운 만족'이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크리스토프 트락슬러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해 에릭사티의 '집노페디 1번'에서 발췌한 느린 멜로디가 이어졌다. 이대로 끝을 맺고 싶더니 모든 멤버가 '쿵' '쿵' 발을 두 번 구르자 팝과 디스코를 넘나드는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다.

공연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이르러 절정을 맞았다. 필하모닉스는 최근 직접 편곡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타이틀로 내건 신보 '비엔나 베를린 뮤직클럽'을 발매해



17일 광주일보가 창사 66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공연을 마친 '필하모닉스' 연주자들이 광주문화예술회관 포토존 앞에서 익살스러운 몸짓과 표정을 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6분37초 동안 연주된 이 곡은 1분 정도 피아노 독주로 시작한 뒤 현악2중주에 클라리넷, 더블베이스 그리고 피아노가 더해진 독특한 구성으로 발라드에서 오페라, 록 장르로 전환되는 원곡의 재기 발랄함을 살리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자아냈다.

공연 전반부 스테판 콘츠가 주도했다. 후반부는 베를린 필 악장으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노아 벤디스-발글레이가

이끌었다. 그는 '헝가리 무곡 1번'을 연주하며 브람스 특유의 작품세계와 흥겨운 집시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기교를 펼쳤다.

빈 필 수석단원인 클라리네티스트 다니엘 오펜잠머는 이날 무대 사이 사이 해설을 곁들이며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줬다. 그는 부상으로 아시아투어에 참여하지 못한 비올리스트 티로 페히너의 소식을 전하며 "젊은 앙상블을 상징하는 빨간색 슈트(양복)

는 원래 페히너의 몫인데 오늘은 트락슬러가 입었다"며 "생각보다 잘 어울려 다행"이라며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2부 서막을 연 '러시아 서곡'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세바스티안 거틀러의 노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슈테판 콘츠가 작곡한 이 곡을 통해 그는 전례 음악공의 노래를 부르며 관객의 호응을 얻어냈다.

피아노는 스텐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이 장식했다. 때로는 왈츠, 때로는 재즈가 연상되는 탁월한 편곡으로 스텐의 명곡이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원곡의 색소폰 부분을 능가하는 에너지를 분출한 오펜잠머의 클라리넷 연주로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연주자들은 영화 '007' 시리즈 주제곡과 신보 수록곡 '발칸 파티'를 앙코르로 들려줬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공연장의 열기는 사인회로 이어졌다. 연주자들은 관객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감사의 말을 주고 받았다.

사인회에서 만난 백자희(48·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최고의 연주로 꼽았다. "연주자들의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그대로 관객에게 전해졌다"며 "실력과 연주자들이 모인 앙상블이라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집중해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공연 뒤 열린 사인회에서 '필하모닉스'가 관객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이날 필하모닉스의 신보는 400장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크리스마스는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광주시립발레단 22~25일 정기공연

광주시립발레단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공연 '호두까기 인형'으로 춤의 향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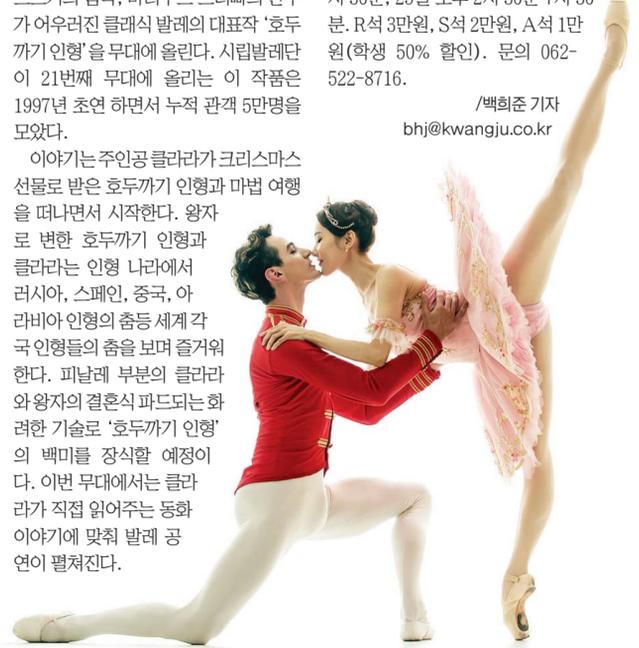
시립발레단은 오는 22~25일 다섯 차례에 걸쳐 123번째 정기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호프만의 동화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마리우스 프티빠의 안무가 어우러진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호두까기 인형'을 무대에 올린다. 시립발레단이 21번째 무대에 올리는 이 작품은 1997년 초연 하면서 누적 관객 5만명을 모았다.

80여명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이번 무대에는 김진경·보그단, 강은혜·송관석, 전진마·우건희, 김민영·이기행 등 4쌍의 주역들이 각자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꾸민다.

22~24일 오후 7시 30분, 23일 오후 2시 30분, 25일 오후 2시 30분~7시 30분.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522-871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야기는 주인공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과 마법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한다.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클라라는 인형 나라에서 러시아, 스페인, 중국, 아라비아 인형의 춤 등 세계 각국 인형들의 춤을 보며 즐거워한다. 피날레 부분의 클라라와 왕자의 결혼식 파도되는 화려한 기술로 '호두까기 인형'의 백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클라라가 직접 읽어주는 동화 이야기에 맞춰 발레 공연이 펼쳐진다.



정목회 회원들의 문인화 향기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그윽한 매화 향기, 눈발의 동백나무, 고결함의 상정 난, 울퉁은 기계의 소나무까지. 문인화가 정암 이병오 선생의 지도를 받는 회원들의 모인 정목회(회장 이미숙) 회원전이 오는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문인화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회원들의 작품이 출품됐다. 홍정순씨는 '10군자 병풍'을 출품했으며 최한재씨는 곧은 대나무 그림과 글씨가 어우러진 '대나무'를 출품했다. 또 설인수씨는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고 걷는 이들의 모습을 담은 겨울 이야기 '눈 오는 날'을, 이순임씨는 그윽한 다량과 매화나무가 어우러진 '청연'을 출품했다. 그밖에 김종철·김은화·노효진·민병태



이미숙 작 '추억소환'

·박귀환·박양수·박영숙·박연이·서지우·설인수·송기환 등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정암 선생은 '꽃피는 봄이 오면'을 찬조 출품했다. 오픈식은 20일 오후 5시. 문의 062-222-805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